

열린 혁신, Only One 건국대로 세계의 중심으로 스마트한 건국대, 'Number 1' 보다 'Only 1' 으로 거듭나겠다

건국대학교(총장 김진규)는 1946년 설립돼 그동안 18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해 왔으며 학교법인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교수 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돼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대학 간의 경쟁에서 단연 앞서, 최근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발전 속도가 빠른 대학, 재정이 튼튼한 대학' 건국대는 그동안 다져온 저력과 내재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제 'i-SMART 건국 2020'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스마트한 새로운 대학 건설에 나서고 있다.

'i-SMART 건국 2020' 비전 통해 '연구하는 대학, 공부하는 대학'으로

건국대는 2010년 9월 제18대 김진규 총장 취임을 계기로 'i-SMART 건국 2020'이라는 비전과 연구·교육·글로벌 대학·친환경 캠퍼스·자랑스러운 동문 등 5대 중점과제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i-SMART는 '혁신'이라는 의미의 'innovation' 과 '지성적'이라는 뜻의 'intellectual', 그리고 '나' 스스로란 'i'에, 학교 (School), 경영(Management), 동문(Alumni), 연구(Research), 그리고 기술(Technology)의 영문 첫 자를 딴 SMART가 결합된 것으로 건학 90주년 이 되는 오는 2020년까지 혁신적인 대학교육과 혁신적인 대학경영, 뛰어난 연구업적과 우수한 졸업생 배출을 통해 스마트한 건국대학교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발전 비전이다.

이를 위해 건국대는 우선 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우수한 졸업생 배출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연구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 우수 교수와 선도 연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연구기반 선진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도 더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크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국내·외 최우수 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 수혜제도와 연계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앞으로 '상허의숙'을 설립해 최우수 인재를 길러내 차세대 국가지도자군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회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튜터시스템을 도입해 전인적 가치관을 배양하고, '진실한 인생', '멀리 높게 바라보는 안목', '실천하는 지성인' 상을 두루 갖춘, 스마트하고 당당한 황소 같은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국 최고의 글로컬(Glocal)대학과 스마트한 에코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을 넘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Glocalization), 즉 세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가장 건국대학교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계량화된 수치에 연연치 않는, 'Only One 대학'이라는 발전전략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과 학부를 육성할 계획이다. 건국대는 '넘버원(Number 1)' 대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건국대로 찾아올 만한 'Only One' 대학을 만들기

위해 5개 정도의 세계 최고 분야를 만들고 육성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분야, 가장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건국대가 가장 앞서 있는 의학, 생명과학, 동물생명공학, 수의학 등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 외에도 융합학문이나 신재생에너지, 하이테크, 문화콘텐츠, 부동산·건축분야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젊고 유능한 교수진... 교육 내실화 연구 역량 확대

건국대는 2000년 이후 해외 유명 석학들을 잇달아 초빙하고 500여 명의 젊고 유능한 교수진들을 대거 임용해 연구와 교육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성화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탄탄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신기술 분야 연구역량 확대, 실용과 응용분야 연계 교육 활성화, 연구 및 교육전담 교수 특성화, 효과적인 교육 커리큘럼 개발, 선도특성화 분야 개발 등 연구

역량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벨상 석학교수 3명 등 해외석학 잇달아 초빙... '글로벌 랩' 운영

해외 석학 유치, 세계적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국대는 최근 노벨상 수상자 3명을 석학교수로 초빙, 건국대 연구진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는 'KU글로벌랩'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Roger D. Kornberg)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레스 알프로프(Zhores I. Alferov)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과학센터장,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루이스 이그나로(Louis J. Ignarro) UCLA 교수 등 3명을 석학교수로 초빙,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세계적인 연구결과들을 하나 둘 내놓고 있다. 이 KU글로벌랩은 기존에 다른 대학들이 해오던 노벨상 수상 석학들을 초빙해 한 차례 특강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실을 아예 건국대에도 두고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것이다.

세계적 연구소 대거 유치... 연구 네트워크 국제화

이같은 건국대의 '연구 네트워크 국제화'는 세계적 연구소들을 잇달아 유치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핀란드의 세계적 연구소인 VTT 국립기술연구센터(VTT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IT)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건국대-VTT 공동연구소

(Joint Lab)'를 설립했으며, 특히 VTT의 한국 내 각종 공동연구를 총괄할 VTT의 한국지사인 'VTT 코리아(VTT 한국연구센터)'까지 건국대 캠퍼스 안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대 헬리콥터 생산업체인 유로콥터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 '세계 우수 연구소 유치 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에너지 분야 세계최고 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ISE)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를 설립했다. 독일 프라운호퍼ISE가 해외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미국 MIT공과대학에 이어 건국대가 세계에서 두 번째이며 아시아에서 최초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연구에서 한 발 앞서온 건국대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제3세대 태양전지 연구에서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를 뛰어넘는 유기물 태양전지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능가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건국대와 산학협력과 공동 연구 등을 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들을 통한 외부 연구비 수주액은 2004년 246억원 이던 것이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해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융합학문 선두주자... 외부 연구비 수주 1,000억원

건국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변신하기 위해 '융합과 통섭'을 주요 테마로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융합학문' 연구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분야에서 건국대는 이미 대학원에 신기술융합학과를 설치했으며 경영학과 공학을 결합한 기술경영(MOT)학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영 분야의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밀리어MOT스쿨'을 설립, 기술경영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 미국 스탠포드대 명예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초빙했다. 또 자율전공학부, 문화콘텐츠학과, 물리학부 양자 상 및 소자전공, 중국통상비즈니스전공, 동화미디어콘텐츠학과(충주) 등을 잇달아 신설해 학부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또, 생명공학분야나 우주항공분야에서도 IT와 NT 등 기술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학제적 통합 연구가 한창이다. 건국대가 전통적으로 강한 바이오(생명공학)분야나 항공우주(초소형비행로봇) 분야도 연구 특성화학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건국대는 2008년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에서도 물리학을 응용한 차세대 메모리 전자소자 개발 등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 1개 과제와 세계적 석학초빙 5개 과제 등 경쟁 대학보다 월등히 많은 6개 과제가 선정되어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WCU사업 선정은 양적 성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구와 교육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인문사회분야 최대 연구프로젝트인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도 선정돼 '통일 인문학' 분야에서 앞으로 10년간 60억원을 지원 받는다.

특히 건국대는 생명공학 바이오 분야의 특성화

를 위해 캠퍼스에 '생명공학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건국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동물생명과학대학·생명환경과학대학·수의과학과 동물병원·의학전문대학원·의생명과학연구원 등 생명과학과 바이오기술 관련 연구, 교육 시설들을 결합해 캠퍼스 내에 생명공학 단지를 만들어 연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건국대는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2010년 국내 처음으로 기술경영(MOT)·MBA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영전문대학원을 개원했다. MBA 설립으로 건국대는 법학, 의학, 경영, 건축 등 4개 전문대학원을 갖추게 됐다.

세계 44개국 280개 대학과 교환학생 등 교류

세계의 젊음과 지성이 함께 모여 화음을 연출하는 글로벌 베이스캠프 건국대는 세계의 우수 인재와 석학들이 앞 다투어 찾아드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 연구기반과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전 세계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국제 교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건국대는 2010년 10월 현재 44개국 280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복수학위제 등 외국 대학과의 교육 과정 공동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제교류 경험의 기회를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및 중국 중심의 교류를 유럽으로 확대하면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대학과의 학생 교환교류가 갈수록 늘고 있고 국제학부 운영,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전임 교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신입 교수의 12%를 외국인 교수로 뽑을 정도로 외국인 교수 비율도 꾸준히 높이고 영어 강좌 비율도 많이 확대하고 있다. 건국대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 수도 2,000여 명에 달하며, 해외로 파견하는 교환학생도 한 해 1,000명으로 늘었다. 건국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미주, 유럽, 호주, 일본, 중국 등의 자매결연 대학과 복수학위제 개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재학생의 해외파견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3,070명 수용 대규모 첨단 기숙사 '쿨 하우스'

건국대는 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070명이 생활하는 최첨단 기숙사 쿨 하우스(KU : Leader's House) 등 최적의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학혜택과 학생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건국대 기숙사 쿨하우스는 12~15층 규모의 5개동에 최고의 주거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학부과정 한 해 입학정원 3,000명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건국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3%로 서울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다. 건국대 기숙사는 특히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학년 선배와 기숙사생 후배들이 모여 전공 주제별 튜터링 학습모임이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들에게 책값과 활동비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파격적 학습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또 기숙사에서 영어로만 일상생활과 개별 의사소통을 하는 '영어전용 층(English Floor)'과 영어 공용화 휴식 공간 형태의 '글로벌 카페'를 개설하고, 취업강좌 등 기숙사생들의 수요가 높은 학습주제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 릴레이 방식으로 특강을 지원하는 '쿨하우스 릴레이 특강'을 운영하는 등 단순 숙박형태의 생활공간을 탈피해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학습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건국대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취업집중교육과정인 '건국 엘리트(Elit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우수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높은 대기업 취업률을 자랑한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기간 기숙사 무료 이용과 수업료, 교재비, 식비 등을 전액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몰입형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과 교양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한 학기 100가지 교양강의를 제공하는 'KU100분100강'은 대학의 대표적 교양강좌로 자리 잡았다. ■